

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

- 「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」 개최

반도체, 전기차, 기계·항공, 정유·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.20.(목) 오송 H호텔에서 열린 「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」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「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」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.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·재자원화·수요기업 등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되었다.

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, 희소금속 연관 기술 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.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*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희토류, 탄탈륨, 규소, 주석, 리튬, 코발트, 망간, 니켈, 타이타늄, 마그네슘, 텅스텐, 몰리브덴, 바나듐, 니오븀, 백금족

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“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,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,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희소금속의 확보부터 국내 생산 및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산업부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송영상(044-203-4690)
		담당자	사무관	정 석(044-203-4693)
	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종주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섭(044-203-4913)

참고

「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」 개요

□ 개요

- 일시/장소 : '25.3.20.(목) 11:00 / 오송 H호텔 세종시티 4F 피아노홀
-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- 주관 : 생산기술연구원, 국가희소금속센터
- 참석
 -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, 철강세라믹과장 등
 - (업계) 희소금속 공급, 재자원화, 수요기업 약 40명
 - (유관기관) 희소금속센터, 광해광업공단, 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재료연구원, 재자원화협회, 비철금속협회

□ 주요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11:00~11:05	5'	개회사 및 행사개요	희소금속센터
11:05~11:10	5'	모두 발언	산업부 (산업공급망정책관)
11:10~11:30	20'	희소금속 종합시스템 구축 계획	일루넥스
11:30~11:50	20'	희소금속 국내 공급망 현황	희소금속센터
13:30~14:30	60'	패널토론(공급-재자원화-수요기업)	참석자
14:30~15:10	40'	희토류 정제기술	충남대학교
15:10~15:50	40'	희소금속 재자원화기술	지질자원연구원
15:50~16:30	40'	희토영구자석 제조기술	성림첨단
16:30~17:10	40'	희소금속 R&D 지원현황	금속PD
17:10~17:50	40'	(정책·산업·기술)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 토론	참가자 전원
17:50~18:00	10'	마무리 발언	산업부